



자연, 문학, 내가 하나되는
희망의 씨앗 뿌린 땅은...

'원서문학관' 오탁번 교수

조선시대 문인들에게는 과거를 통한 '입신양명(立身揚名)'이 하나의 꿈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근본적인 지향점은 '출세(出世)'가 아니었다. 사대부들은 노년에 이르러 임금의 청도 물린 채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리고는 자연의 품에 안겨 후학양성으로 여생을 회향했다.

시대는 변했지만 그와 같은 선비의 뜻은 충북 제천 '애련분교'에 오롯이 남아있다. 폐교된 모교 애련분교를

그는 자연을 화두삼아 자연과 가까이 살고 싶은 것이 전부라고 했다. 다만 욕심이 있다면 제천을 담고 기른 지역의 문인들과 그 마음을 함께 키우고 싶은 것이란다. 그래서 문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문학관을 마련했고, 매주 한차례씩 지역문인들이 참여하는 문학워크숍을 열어 그 뜻을 함께 나눠왔다. 그 덕에 20여명에 이르는 제천의 문인들은 작품 구상을 위한 집필실을 뜻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고, 문학가들의 생생한 자필원고가 비치된 자료실을 가까이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공간마련이 전부가 아니었다. 오 교수는 문인들의 마음속에 자연을 심어주고 싶었다고 했다. 그 어느 곳보다 풍부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선사하기 위해 그는 두 팔 두 발 걸어부치고 나섰다. 허허벌판이었던 운동장 한 곳에 수련이 자라는 예쁜 연못을 만들고, 잡초만 무성했던 풀밭에는 초롱꽃, 애기동자꽃 할 것 없이 수십 종의 야생화가 다무어 그는 꽃밭을 꾸렸다. 뿌리가 튼튼한 소나무 위에는 바람소리를 담은 풍경을 곁에 매달았고, 수돗가 한편에는 물과 술과 곡식을 수시로 담아낼 들화도 마련했다. 천석고황(康石膏)을 노래하던 오 교수의 자연에 대한 애정이 문학관 곳곳에서 형상으로 피어난 것이다.



낙향후 제천에 '원서문학관' 설립 지역문인들과 한마음되어 집필몰두 교정 가꾸고, 어린이 시인학교 운영 천진스러운 '할아버지 선생님' 인기 산에 향아리 암자 만들어 '觀' 생활화



문학관 내에 마련된 문학가들의 초상과 육필원고들.

인수한 이후 '원서문학관' 단장에 골똘하고 있는 오탁번(고려대 국어교육과 62) 교수는 "노육(老耄)은 가장 어리석은 것"이라며 욕망을 털어낸 낙향생활 3년의 서두를 열었다. 오 교수는 20대에 동화, 소설, 시 세 분야의 신춘문에 당선작을 발표한 이래 29세부터 지금까지 대학에서 인재를 양성해온 한국 문학계의 거장. 그런 그가 조계사 앞에서 장만했다는 묵타를 두드리며 제천행을 결심하게 된 이유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자연은 해석하기 어려운 책 같아. 나는 열등생이고, 하지만 배워나감다 보면 무한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자연이란 말야."

그가 지난해에 이어 '어린이 시인학교(7월 26-30일)'를 열게 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문명의 이기에 지든 아이들에게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미덕을 소리 없이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학에 담긴 자연을 읽고 자연에 숨은 문학의 맛에 다가갈 수 있는 문학교실을 준비했다. 문학교실 과정에는 50년 된 나무의 자에서 진행되는 글짓기 시간, 울타리밖 800여 평의 텃밭에서 체험하는 작물재배의 시간 등 신나는 프로그램이 가득하다. 그리고 내로라하는 문인강사진과 오 교수만의 프로그램 해설 또한 독특하다. 그의 시 속에 천진스럽게 녹아든 동심이 꾸밈이 아닌 듯, 지난 시인학교 기간 동안 할아버지 선생님이로 불리던 그의 인기는 빨갭게 익은 앵두열매보다 뜨거웠다고 한다.

그런 오 교수가 최근 새로운 발원을 했다. 자연의 일부가 되는 것을 미리 체험하면서 깨달음에 다가갈 수 있는 '자각의 공간'을 준비하고 나선 것이다. "향아리 암자를 만들 생각이야. 너구리, 산토끼를 이웃삼아 정진할 수 있는 크지 않은 나만의 수행처 말이야."

그는 문학관에서 멀지 않은 산에 이미 공간을 마련해 뒀다. 그리고 상인 한 명이 웅크리고 겨우 들어갈만한 크기의 향아리 또한 그곳에 몰래 묻어놨다. 어머니 자궁 안에서 무의 상태로 '나'와 '세상'을 준비하던 것처럼, 그는 향아리 속에 들어앉아 끊임없이 '관(觀)'하겠노라 했다. 그리고 사라져가는 문화를 언어로 복원해내는 '시작(詩作)의 목표'에도 천천히 다가갈 것이다. 도반이 생기면 향아리를 한 개 더 묻고, 뜻을 함께 하는 이들이 많아지면 문학관과 인근 텃밭을 중심으로 문학공동체를 꾸리면 된다.

자연과 문학, 그리고 내가 하나되는 삶이 시작될 충북 제천의 '원서문학관'. 아직 희망의 씨앗이 뿌려진 것이 전부지만 새로운 문학마을의 태동을 기다리는 시선들은 변함없이 기대에 차 있다. (043)653-0978

글=강신재 기자 · 사진=백재원 기자



법구경 강의 80송

불교방송에서는 동국대 교수, 법산스님의 설법집《법구경 강의 80송》을 테이프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각박한 현실 속 현대인들의 마음에 한구절의 시처럼 쉽게 다가오는 법구경을,

법산스님은 알기쉬운 생활방편을 곁들여 불교를 접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잔잔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잠 못 이루는 사람에게 밤은 길어라.
피곤한 사람에게 길은 멀어라.
어리석은 사람에게 생,사 길거니
그는 바른 법을 모르기 때문일세.
- 법구경 수삼품

구입문의 불교방송 포교자료팀
전화 (02)706-3502~5
가격 70,000원(C70×20EA)

BBS 불교방송

서울FM101.9MHz · 부산FM89.9MHz · 광주FM89.7MHz · 대구FM94.5MHz · 청주FM96.7MHz · 춘천FM100.1MHz

